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05호 [루게 제24353호] 주체102(2013)년 11월 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몽골대통령이 선물을 드리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그도르쥬 몽골대통령이 10월 3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선물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선물을 짜하이긴 엘베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의 기간에 중국과 나이지리아에서 보도하였다.

《김일성신문》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를 지도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완공된 미림삼마구락부를 돌아보신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신문, 인터넷홈페이지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대회를 지도하시는 사진문헌, 인민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사진문헌,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촬영을 하시는 사진문헌을 모시었다.

《김일성신문》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0월 21일부터 2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신문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전체 재로조선공민들은 오늘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뜻깊게 경축한 긍지를 안고 재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 결성 20돐을 맞이하고있습니다.

이 끌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민원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재로조선공민중앙협의회를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주체조선의 해외공민조직으로 튼튼히 꾸려나가겠습니다.

재로조선공민중앙협회 주체102(2013)년 10월 30일

김정일대원수회고 나이지리아전국위원회 결성

김정일대원수회고 나이지리아 전국위원회가 10월 25일 아부자에서 결성되었다.

인 나이지리아조선전선협의회 위원장 이브라힘 만투가, 부위원장 조나 쿨라하의 장인 아군와 아나에크레가, 서기장으로 나이지리아인민민주당 신용위원회 위원

원장 알하산 맨넬 무함마드가 선출되었다.

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고 널리 소개선전하기 위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올해전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총공격전에 더 큰 박차를 가하자

3대혁명의 불길로 대고조진군을 추동

각지 당조직들에서 3대혁명 불은기쟁이운동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최후승리를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도록 하고있다.

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소문이 발표되자 호소문에 제시된 과업관철을 위한 사업을 3대혁명불은기쟁이운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밀고나갔다.

초급당위원회의 작전에 따라 당, 행정, 근로단체일꾼들 모두가 생각장애를 없애고 당원들과 함께 일하면서 올해신년사의 전투적과업을 해설해주는 등 석탄 생산을 높이기 위한 정치사업을 착신하게 진행하고있다.

3대혁명불은기 화염군목제 품가공공장 당조직에서도 3대혁명의 기치높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대고조진군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한 발자취가 어려웠던 영광의 땅 고산과수농장에 경사가 있다.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중앙지휘부에서는 설계원들과 일꾼들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지도하신 은하파라자키리, 룡라인민유원지에 대한 참관을 조직하고 살림집설계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하도록 하였다.

갖 성의를 기울여왔으며 주변 정리도 알뜰하게 하였다. 황해남도려단의 돌격대원들은 올해에 들어와 수십동의 살림집과 여러 대상의 공공건물에 대한 지붕의우기, 외장재바르기, 장식물타라공사 등을 진행한 기세를 늦추지 않고 고풍하게 해나갔다.

몽골대통령 짜하이긴 엘베그도르쥬각하 평양 양 출 발

【평양 10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초청에 의하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그도르쥬각하와 일행이 10월 31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의하여 우리 나라를 국가방문한 몽골대통령 짜하이긴 엘베

그도르쥬각하와 일행이 10월 31일 특별비행기로 평양을 출발하였다.

비행장 국제기대행에는 조선과 몽골 두 나라 기발이 나뉘지 않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와 박의춘의무상, 리봉남부역상, 오금철 조선인민군 부총참모장, 손봉호 체육성 부상, 박일봉 룡해운성 부상, 홍규 몽골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조선몽골친선협회 위원장인 김진범 대외문화원탁위원회 부위원장, 관계부서 일꾼들과 주조 몽골대사관 성원들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연란스레트광산 현대화공사가 완공되었다.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천세만에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연란스레트광산 현대화공사가 완공되었다. 광산의 현대화가 실현됨으로써 질 좋은 지붕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돌가공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서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란스레트광산 현대화공사가 완공되었다. 광산의 현대화가 실현됨으로써 질 좋은 지붕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돌가공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서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연란스레트광산 현대화공사가 완공되었다. 광산의 현대화가 실현됨으로써 질 좋은 지붕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돌가공제품들을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발전에서 이바지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중앙통신】

당보창간과 더불어 빛나는 주체적출판보도물의 자랑찬 역사

68년전 11월 1일은 조선로동당의 기관지가 처음으로 태어난 역사의 날이다.

《정로》가 나왔습니다. 우리 당보가 말입니다. 보았습니까? 자, 우리 당보를 보시오. 우리가 그처럼 애써 준비해온 당보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당보창간호를 펼쳐드시오 그처럼 기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그 모습, 그 율성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못하고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인 당보의 창간과 함께 주체적인 우리 당출판보도물의 긍지높은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날과 더불어 우리의 출판보도물은 영광스러운 당의 혁명위업수행에서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로서 혁명투쟁을 힘있게 추동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에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며 사상의 위력은 붓대에 의하여 담보됩니다. 인민대중을 사상적으로 각성시키고 영웅적투쟁에로 고무추동하기 위하여서는 붓대를 중시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총대와 함께 붓대를 혁명투쟁의 강위력한 무기로!

이것은 우리 수령님께서 혁명투쟁의 전기간 견지하여오신 신념이었다.

적들이 언론에 자갈을 물리고 식민지통치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모든 언론들을 총칼로, 뚝뚝이 가차없이 짓밟아버리던 시기에 《새날》, 《3.1월간》, 《서광》, 《중소리》, 《월형》과 같은 혁명적출판물들을 발간하도록 하시어 《북대포》의 위력으로 조국해방의 최후승리를 앞당기도록 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이의 불멸의 업적을 떠나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싸우는 백두의 영웅사시를 창조하게 한 붓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첫 독자가 되시여

매일 아침 《로동신문》을 받아안을 때마다 사람들은 당보의 첫 독자가 되시여 《로동신문》을 펼쳐보시던 절세위인들에 대한 생각이 사무쳐와 후련한 마음을 금치 못해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보를 제때에 보아야 당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요구대로 일할수 있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의 령도아래 당보가 창간되어 새 조국건설이 더욱 활기있게 다그쳐지고있던 때였다.

어느날 아버지수령님께서 한 일군에게 당보에 어떤 기사들이 실렸으며 주요기사들의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시었다. 그날신문을 보지 못한 일군은 대답을 드릴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에게 당보는 당의 지시서와 같다고 하시면서 아무리 바빠도 당보를 꼭 읽어야 한다고 간곡히 이리시었다.

연세인이 아버지수령님께서 자신께서는 아침 다섯시가 되면 《로동신문》이 왔다고 묻는다고, 두시간정도만 신문들을 보면 그사이에

피어린 항일의 나날에 마련하신 혁명적출판물의 깊고도 억센 뿌리에 기초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 후 당이 창건되는데 맞게 당보를 창간하도록 하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었다.

당보의 제호 하나에 도 아버지수령님의 깊은 뜻과 심혈이 깃들여있었다.

그때 당보의 제호와 관련하여 《선봉》, 《전진》, 《봉화》, 《전위》와 같은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어느것이나 우리 당의 성격과 지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것이였다.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보의 이름을 《정로》라고 하는것이 좋겠다고, 오늘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정치정세에서 인민대중에게 당의 로선을 잘 알려주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것은 당의 중요한 임무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이 인민대중에게 올바른 로선을 가르쳐주고 그 길로 대중을 인도한다는 의미에서 당보의 이름을 《정로》라고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주제 34 (1945)년 11월 1일 당보 《정로》의 첫호가 세상에 나왔다.

우리의 첫 당보를 펼쳐드시오 아버지수령님께서 얼마나 기쁘시던가!

당보의 창간호를 보고 또 보시며 이것은 우리 당의 창건과 함께 김일성장군님의 역사적인 위업의 자랑찬 승리로 된다고 격정에 넘쳐 말씀하시었다.

전정 당보의 창간은 수천수만의 총대대와 맞먹는 또 하나의 힘있는 당사상선전의 전초병, 우리 당의 믿음직한 동행자의 대오가 탄생한 순간이었으며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사건이었다.

해방후 한사람의 인제가 귀중한 때에 우수한 일군들을 선발하여 당보의 편집진단을 꾸려주시고 나라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속에서도

많은 자금을 들여 필요한 설비와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 이시었다.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돌보시느라 무척 바쁘시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당보를 읽으시는것으로 하루일과를 시작하시고 사설이나 논설뿐아니라 자그마한 보도기사에 이르기까지 신문에 나가는 모든 기사들을 빠짐없이 보아주시었다. 어떤 날에는 자정이 지난 깊은 밤에 전화를 걸어오기도 하시었고 또 어느날에는 당보편집실에 나오시어 기자, 편집원들에게 당보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자신께서 리용하시던 승용차를 기사들의 취재용승용차로 보내주시던 사연, 당보의 기사들과 함께 야외에서 참석하신 일화들 비롯하여 당보와 더불어 전제되는 사람의 이야기들은 또 얼마든지 모른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세심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었기에 당보를 비롯한 우리의 혁명적출판보도물은 언제나 당의 사상을 견결히 옹호하는 기수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었다.

붓대의 자랑스러운 전통은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손길아래 역사가 일제기 알지 못한 붓대중시의 빛나

는 전성기를 펼쳐놓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언론을 지도하여주시던 때로부터 출판보도부에서 혁명의 불길기 세차게 타올랐다. 기성판과 재제식방법으로 글을 쓰고 편집하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르고 당사상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사실혁명, 신문혁명, 보도혁명, 방송혁명, 출판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이바지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라는 고전정적시호로 붓대의 지위가 새로

높이에서 정립되게 되었다. 기자, 언론인들을 선군혁명의 앞장에 내세워주시고 자신과 뜻과 슬결을 같이하는 선군혁명동지로 믿어주고 사랑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을 다 이야기하자면 정병 끝이 없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주제 82 (1993)년 8월 19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기별도 없이 로동신문사를 찾으시었다.

이날 새롭게 꾸려진 신문편집공정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당보의 편집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어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인 《로동신문》의 편집과 발행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당과 군대, 국가의 전반사업을 령도하시던 그 바쁘신 속에서도 로동신문사를 찾으시고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그이의 품에 모두가 한달음에 달려가 안기였다. 위대한 령도자와 전사들사이에서 혼연의 정이 넘쳐흐르는 참으로 감동적인 화폭이었다.

아버이수령님의 이런 믿음과 열연의 장이 있어 우리의 붓대는 더 역세게 버려질수 있었다. 당의 의도대로 글을 잘 쓰는 동무

들은 영웅이라고 하시며 높이 내세워주시고 좋은 글을 쓰자면 현적이 가보아야 한다시며 몸소 비행기도 띄워주시고, 색다른 식료품이 생겨도 기자, 편집원들이 생각나시어 보내주시며 기사들의 취재필요와 생활상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은 관심을 돌려주시는 분이 아버지수령님 이시었다. 당보의 한 현실원이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좋은 글을 써냈을 때에는 참 잘 썼다고 거듭 거듭 치하해주시며 주실수 있는 모든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고 몸소 가까이 부르시어 영평의 절정에

내세워주시는 품같은 사랑의 이야기도 우리 장군님의 품속에서 꽃피날수 있었다.

때로는 스승이 되시여 글쓰는 방법도 가르쳐주시고 때로는 좋은 글까지 주시기도 그 모든 공로를 문필가들에게 고스란히 돌려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이런 세심한 지도와 은정속에 천만독자의 심금을 울리고 그들을 강성국가건설에로 불러일으키는 힘있는 글들이 연이어 쏟아져나올수 있었다.

당창건 65돐을 맞는 뜻깊은 해인 주제 99(2010)년 2월 전국기자, 언론인대회를 마련해주시고 대회참가자들에게 서한 《기자, 언론인들은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진군나팔수이다》를 보내주시는 것은 우리 전체 기자, 언론인들이 주체의 필봉, 선군의 붓대로 사회주의위업을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선군혁명투사가 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고 기대였다.

우리 당출판보도물을 철두철미

아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출판보도물로!

이것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지금도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가슴마다에는 새로운 주제 100년대의 첫 진군길에서 하신 경애하는 현수님의 말씀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그날 당보의 책임일군과 문필가들을 몸가까이 부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의 일심단결을 공고히 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훌륭한 글들을 써벌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당보의 문필가들은 장군님께서 품들어 키워주고 내세워주시는 우리 당의 귀중한 보배들이라고, 로동신문사주의위를 충직하게 만들어나가는 선군혁명투사가 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이고 기대였다.

이것이 우리 기자, 언론인들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전체 문필전사들이여! 경애하는 김정은현수님을 받드는 길에서 붓대를 높이 추켜들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대전의 믿음직한 진군나팔수가 되자.

글 분사기자 백영미 사진 분사기자 리충성



출중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

선군혁명동지로 불러주시며

위대한 선군정쟁의 혁명동지가 되어 혁명의 필봉을 역세게 들어잡고 사회주의사상선전의 전초선을 지켜 가는 우리의 언론인들의 삶은 긍지 높고 보람차다. 연세인이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문필전사들을 만나신 자리에서 기자, 작가들은 당의 영원한 선군혁명동지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혁명의 붓대를 역세게 들어잡고 당사상선전을 지켜가고있는 우리 언론인들을 더없이 아끼고 사랑하시며 혁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갈 동지로 귀중히 여기신 우리 장군님의 동지애의 세계의

신문게시판을 보시면서

불량기 한껏 넘쳐나는 어느해 5월,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 일군군 부대를 찾으시던 때의 일이다. 애뜻은 그날 부대의 여러곳을 돌아다니시며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군인들이 리용하는 신문게시판에서 문득 결음을 멈추시었다. 부대지휘관으로부터 부대에 신문이 도착하는 정형에 대하여 구체적

안거와 속구치는 걱정을 금할수 없었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언제나 군인들의 사상교양사업과 문화정서생활에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면서 신문게시판리용정형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신

깊이 관심하시던

어느해인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동지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출판물보급사업정형에 대하여 일일이 료해하시었다. 그 과정에 그이께서는 출판물보급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들에 대하여도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해당 부문의 일군군을 부르시어 지금 당보를 비롯한 여러 출판보도부문의 기자, 편집원, 인쇄부문 종업원들은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날신문을 받아볼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품을 들여 적 어떤 신문이 나라의 곳곳에 제때에 가닿도록 전달, 전국적으로 출판물, 우편물수송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 군인들과 인민들이 당보를 비롯한

아버이수령님, 당의 의도와 목소리가 담긴 혁명적출판물들을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귀중한 사상정신적방식으로 보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였기에 신문게시판 하나에도 그토록 커다란 관심을 돌리시었다.

출판물 제때에 받아볼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었다. 그후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진적으로 출판물, 우편물수송체계를 철저히 세워 인민들이 출판물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전보장 사업을 잘하며 해당 부문 일군들이 이 사업을 책임적으로 일관성있게 밀고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렇듯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이 있어 오늘 우리 당출판보도물은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밀어주는 훌륭한 교양자, 대담한 선전자, 충실한 대변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더욱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는 것이다.

분사기자 강철남

몽골 대통령 이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았다

【평양 10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몽골대통령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취와 그의 일행이 10월 31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았다.

대통령은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아 연설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몽골의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대외정책에 대하여 말하였다.



짜히아긴 엘베그도르취 대통령 문수물놀이장 참관

【평양 10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짜히아긴 엘베그도르취 몽골대통령과 일행이 10월 31일 문수물놀이장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이러 대통령과 일행은 우리 나라 4.25체육단과 몽골 에나코메체육단 선수들의 여자배구경기를 관람하였다. 한편 대통령일행의 일부



